Sajinyesul, Korea May 2010



Julian Faulhaber born in Germany in 1975 has been named a new and emerging photographer to watch in 2009 by Photo District News. Complete and newly created space is chosen by the artist's image components. Intense color from 10 to 20 second exposure and composition gives unique perspective of the light. Image often appears abstract or even unreal. However it is common space such as supermarket nearby or parking garage. Artist excluded people to show pure appearance of the architecture. Artist excluded people to show pure appearance of the architecture. Spaces appear artificial, organized, clean, and clutter-free space. However, the artist sees opposite. Each site is designed to meet company's need. His work shows difference between the construction of physical reality, the daily experience of a space, and the avantgarde inconsistencies.

Julian Faulhaber 미국 Lowdensitypolyethylene

1975년 독일에서 출생한 작가 율리안 파울하버Julian Faulhaber는 2009 Photo District News에서 떠오르는 신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시리즈는 새로 만들어 진 공간이 완성된 시점과 작가에 의해 선택되어진 시점 간의 창조된 이미지의 구성물이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강렬한 색상과 빛은 10~20초간의 노출과 구성되어진 원 근법으로 그것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빛을 드러 내고 있다. 그 결과 작품들은 추상적이거나 환상으로 보 인다. 하지만 그것은 주변의 슈퍼마켓, 차고와 같은 일상 적인 공간이다. 작가는 이미지 속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건축물들의 순수한 외관을 표현하는데 그 집중력을 떨어 뜨린다고 보고 배제시켰다. 작품 속의 장소들은 상당히 인공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순수한 공간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작가는 그 안에서 방부제 처리된 욕망을 보고 있 다. 각각의 장소들은 기업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 로 사실은 그렇게 순수한 공간은 아니다. 작가는 독일의 유형학적 사진의 전통을 따라 물질적인 건설의 현실, 공 가들의 일상적인 경험 같은 유형학적 장소에 흐르는 아방 가르드한 이상세계로의 불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www.hastedhuntkraeutler.com



1. Julian Faulhaber, Stalle (Stalls), 2009, Digital C-Print 46 x 59inch © Julian Faulhaber, Courtesy Hasted Hunt Kraeutler

2. Julian Faulhaber, Automaten (Machines), 2007, Digital C-Print 57 x 43inch© Julian Faulhaber, Courtesy Hasted Hunt Kraeutler